

현금인출기로 3000만원 빼 내 ... 해커 일당 2명 CCTV 찍혀

(5개 계좌서 600만원씩)



지난 8일 서울 구로동의 농협 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한 남성이 현대캐피탈이 송금된 1억원 중 일부인 60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 용의자들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5개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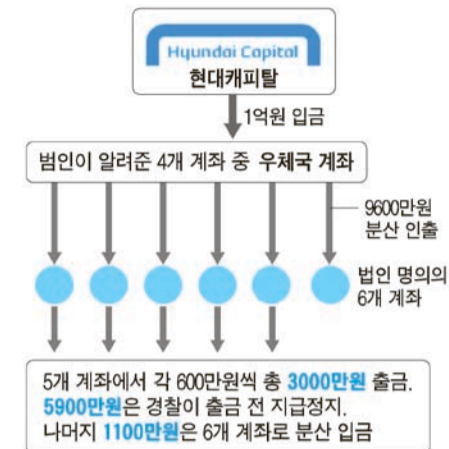
현대캐피탈 해킹 ... 송금 된 '미끼 돈' 어떻게 인출했나

경찰은 현대캐피탈 고객 42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 일당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해 이들에 대한 추적이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농협 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한 남성이 돈을 찾는 영상과 9일 오후 신한은행 속명여대 입구점에서 또 다른 남성이 돈을 인출하려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모두 20~30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며 유력한 용의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측은 지난 8일 해커가 '협박 e-메일'에 적은 계좌 4개 중 1개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조치를 취했으나 해커들은 이에 앞서 이미 3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900만원은 지급 정지된 상태이고, 나머지 1100만원은 해커들이 6개 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 돈 어떻게 빠져나갔나



부) 공격으로 시스템에 혼선을 주거나 단발적인 해킹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는 있었으나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금융해킹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표적 공격에 대비해 상시 보안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종인 고려대 스마트그리드보안연구센터장은 "현대캐피탈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처럼 해킹 피해를 입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보안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시만텍코리아에 따르면 금융분야는 2009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60%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공격 대상이 됐다. 2008년 29%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시만텍코리아 윤광택 이사는 "해커들의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고 표적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시 보안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해킹을 당한 건 리스용 차량 정비업체용 서버와 광고메일 발송용 서버 두 곳이었다. 11일 현대캐피탈 특별감사에 나선 금감원은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암호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고객 DB 암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다 2009년 초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서버가 확실히 분리돼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측은 "두 회사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현대카드 고객정보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금융ISAC)와 점검반을 꾸려 전 금융권에 보안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박성우·허진 기자 blast@joongang.co.kr

4개 계좌로 5억 송금 요구한 뒤

1억 들어오자 6개 계좌로 분산시켜

농협 구로점, 신한은행 속대점서 돈 빼간 20~30대 용의자들 포착

해킹할 때 '중간서버' 사용한 사람 2명 신원 확인, 소재 추적 나서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초와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국내의 중간 서버를 통해 현대캐피탈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중간 서버 이용료를 결제한 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앞서 범인들은 지난 7일 오전 9시쯤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해킹 사실을 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쯤 다시 메일을 보내 "내일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5억원을 입금하라"고 한 뒤 이튿날인 8일 오전 10시 "지금 알려주는 4개 계좌에 입금하라"고 했다.

경찰은 "범인들의 계좌는 모두 범인 명의로 돼 있다"며 "이들 범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해킹 증가 속 금융사 보안은 취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2008년 7개 저축은행 등이 동시에 공격당한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

"과학벨트 분산 반대세력과 합당 가능 조건없이 대표직도 내놓고 백의종군"

이회창, 친박계-심대평 겨냥한 듯

자유선진당 이회창(얼굴) 대표가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고리로 한 '합당카드'를 정치권에 던졌다. 과학벨트의 임지로 충청권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공약을 파기하려는) '불신 정치' 추방에 동조하는 세력과는 공조나 연대도 있을 수 있고 합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표직을 내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합당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느 당과 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짐작은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09년 선진당을 탈당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같이 가자는 것도 나도 해운 얘기"라고 밝혔다. 선진당과의 합당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 대표가 내건 합당이나 연대의 '조건'(과학벨트 충청 유치 지지)에는 심 대표 뿐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해당이 된다.

박 전 대표는 2월 16일 과학벨트 임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손 대표도 2월 15일 대전 방문에서 충청권을 과학벨트 임지로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당론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 등에서 선진당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 연대를 추진 중인 민주당에서도 "충청권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일 뿐"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Coréana

TV광고 상품

“미백도 탄력도 완벽한 피부로 다시 태어나요”

코리어나 전속모델 한혜진 KBS 2TV 수목드라마 '가시나무세' 출연 중

코리어나가 드리는 특별제안

'비타민C 콜라겐 파우더 에센스' 스페셜 기획세트를 만나보세요
비타민C와 콜라겐의 시너지 효과로 보다 완벽한 미백과 탄력, 주름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품] [중정]

식약청 미백 주름개선 이증기능성 인증

비타민C 콜라겐 파우더 에센스 4gx5개
콜라겐 트리트먼트 30ml 200,000원대

콜라겐 트리트먼트 젤 마스크 키트(페이스용 5매 + 아이용 5매)
시너지 스킨케어 4종

지금 코리어나와 함께하는 '행복 비타민'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사은품 - 한샘 주방 리모델링 (500만원 상당), 삼성 자택 냉장고 (150만원 상당), 삼성 로봇 청소기 (50만원 상당) 등

고객상담실 080-022-5013 www.coreana.com에서 이벤트 배너창을 클릭하세요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본 기획 세트는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은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행시 제세공과금 22%는 고객님 부담입니다.